우암학원 창학67주년 | 취업맞춤형 특성화 선도대학
Good Smile NAMBU
남부대학교

光州日報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20747호 1판 (음력 3월 25일) 2018년 5월 10일 목요일

RADIANT XROSSOVER NEW GENERATION RX 발견하라. 감동하라
www.hyosunglexus.com
LEXUS
광주전시장 080-384-7733
전주전시장 080-263-7743

광주가 통곡할 때 그들은 웃고 있었다

박준병과 소준열 1980년 5월 27일(추정) 광주를 피로 물들이고 진압한 소준열(오른쪽) 전남북 계엄분소장(소장)이 활짝 웃으며 전남도청에서 나오는 모습. 소 사령관 옆 철모를 쓴 이는 전두환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박준병 제 20사단장이 유력하다고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밝혔다. 〈5·18기록관 영상 촬영=최현배 기자〉

1980년 5월 광주 담은 미공개 영상물 첫 공개

5월 20일~6월 1일 촬영…16㎜ 네거티브 필름 72분 분량

금남로 대치·주먹밥 나누기·망월동 안장 등 광주 곳곳 담겨

1980년 5월 광주의 모습을 담은 미공개 영상물이 38년 만에 최초로 공개됐다.

72분 분량 영상에는 5월 21일 낮 계엄군의 집단발포를 앞두고 시민과 공수부대가 대치하는 일촉즉발의 순간, 입관도 하지 못하고 의료기관에 방치된 시신, 주먹밥을 나누는 시민들 모습 등 5·18민중항쟁 당시의 광주 곳곳이 담겼다. 〈관련기사 3면〉

익명의 촬영자가 자유롭게 시민군과 계엄군 진영을 넘나들며 5월20일부터 6월1일까지의 광주를 날 것 그대로 담아내 사료적 가치가 높다는 평가가 나왔으나 집단발포 순간, 헬기사격, 시민학살 내지 구타 장면 등 군의 잔혹한 모습이 빠져있다는 점에서 '공개하고 싶지않은 5·18의 진실이 담긴 원본이 존재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나오고 있다.

◇**도청진압 후 활짝웃는 소준열**=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9일 오후 광주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5·18민주화운동 미공개 영상기록물 상영회'를열었다.

이 영상은 1980년 5월 20일부터 6월 1일까지 국군통합병원과 적십자병원 환자 치료 상황, 전남도청 기자회견 등 광주 일대와 근교를 촬영한 영상기록물이다. 모두 16㎜ 네거티브(음화) 필름 형태 총 3권(롤)으로 상영시간은 72분이다. 음성은 없고 영상만 나온다.

'광주 Part1'에는 5월 20일부터 27일까지 광주의 모습이 기록됐다. 기자단 헬기 탑승, 도청 상공 촬영 장면, 광주 외곽과 시민, 무기 회수하는 계엄군 등의 모습이 보인다.

'광주 Part2'에는 5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도청 현관 앞 회수된 무기들, 거리 청소, 주요 건물 앞에서 경계 중인 계엄군, 헬기를 타고 도청을 방문한 소준열(당시 전남북 계엄분소장·전투병과교육사령부 사령관), 광주 진압작전에 투입된 박준병 육군 제20사단장(추정), 망월동 안장(시신 운구 유가족 등) 등의 모습이 담겼다. 마지막 '광주 Part3'은 5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군의 유혈진압 후 광주의 모습을 보여준다.

◇**집단발포 영상 삭제됐나**= 영상은 5월 21일부터 6월 1일까지 광주의 모습을 비교적 날 것 그대로 담고 있다. 그러나 유독 공수부대의 금남로 집단발포 장면이나 시민을 구타하는 군의 모습 등 잔혹한 장면은 보이지 않는다. 군이 공개하고 싶지 않은 5·18의 진실이 담긴 원본 필름이 존재하지 않느냐는 의문이 나오는 이유다. 촬영자가 당시 긴박했던 광주 상황과 관계없이 숨지 않고 시내를 활보하며 영상 촬영하고 집단발포 당일 계엄군 진영에서 시위 군중을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공개되지 않은 원본 존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 관계자는 "엄혹했던 시기에 촬영자가 비교적 자유롭게 영상을 촬영했던 것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촬영자가 누구인지, 원본이 따로 있는지 여부는 현재 확인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 공개된 영상 자체 만으로도 사료적 가치가 높다. 앞으로도 5·18 관련 영상 등 기록물 발굴에 힘써 진상규명에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5·18기록관은 지난해 12월 익명의 수집가로부터 5·18 영상기록물을 소장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 수집가는 영상기록물의 수집경로에 대해서는 함구했으나 수집경로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기록관은 전했다. 기록관은 영상기록물의 상태와 내용을 점검한 이후 올해 3월 기록물을 구매했다. 공개한 영상은 촬영 구도, 수준, 기법 등을 고려할 때 군 기록물 관계자, 언론사 기자 등 전문가가 찍은 것으로 추정된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中·日 '판문점 선언' 지지

한중일 정상회의 "동북아 평화·안정 공동 노력"

한국과 중국, 일본은 9일 일본 도쿄에서 3국 정상회의를 열고 4·27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고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3국이 공동 노력을 하는 내용의 특별성명을 채택했다. 〈관련기사 2면〉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이날 도쿄 영빈관에서 열린 3국 정상회의에서 상호 실질협력 증진 방안과 한반도 등 주요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뒤 이같이 합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세 정상은 특별성명에서 ▲판문점 선언에서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확인한 것을 환영하고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기대하며 ▲남북정상회담 성공이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도록 3국이 공동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바탕으로 북미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뤄져 한반도에서 냉전 구도가 해체되고 동북아 및 세계 평화와 번영의 새 역사가 만들어지기를 바라며 이 과정에서 일본·중국과 전략적 소통과 협조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이에 아베 총리와 리커창 총리는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에 축하와 환영의 뜻을 전하면서 중국과 일본도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건설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세 정상은 특별성명과 별개로 3국 간 교류협력 증진, 지역·국제 정세에 대한 공동대응 및 협력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공동선언문도 채택했다. 세 정상은 3국 협력을 더욱 내실 있고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정상회의 정례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3국 협력사무국 역할을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또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협력 ▲감염병·만성질환 등 보건 협력과 고령화 정책 협력 ▲액화천연가스(LNG) 및 정보통신기술(ICT) 협력과 같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지속해서 발굴·추진하기로 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폼페이오, 北 억류 미국인 3명 데리고 귀국할 듯

북한을 전격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북한에 억류돼 있는 미국인 3명을 데리고 함께 귀국길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이 9일 보도했다.

당초 이달 중으로 예고됐던 북미정상회담의 정확한 날짜와 장소 확정이 지연되는 이유 중 하나로 억류자 사전송환 문제가 거론돼 왔다는 점에서 그가 이번 방북에서 억류자들을 데리고 나오는 '전격 이벤트'를 연출할 경우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8면〉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전용기 편으로 평양에 들어가면서 미 국무부 출입 풀기자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재방북 목적으로 북미회담 의제 확정 등을 꼽으며 "북한이 옳은 일을 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억류자 석방 문제를 다시 얘기할 것"이라며 "북한이 석방 결정을 한다면 위대한 제스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도 현지시간으로 8일 오후 이란 핵합의 탈퇴를 발표하는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재방북 사실을 공개하며 억류자 석방 문제에 대해 "그들이 석방된다면 대단한 일일 것이다. 우리는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해 기대감을 키웠다.

외신들도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을 구체적 의제와 날짜, 장소 등 핵심 사항들이 최종 조율되는 민감한 시점에 폼페이오 장관이 전격 재방북한 사실에 주목했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콜비츠·오윤·도미야마 판화전 ▶16면
김민식·유승철 땀이 준 자신감 ▶18면

사랑과 감사의 64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8]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업계최초!!
단체맞춤여행
인증제 시행!

인증서는 고객과
하나투어의 약속입니다.
'맞춤여행 인증제'로
여행의 신뢰를
더하세요.

CERTIFIED 단체맞춤여행 인증제 CERTIFIED

안전성
국내 유일 전세계 23개 네트워크로 안전한 여행을 제공합니다.

신뢰성
인증서로 계약사항을 명확하게 이행할 것을 보장합니다.

전문성
하나투어만의 노하우로 정확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까운 하나투어 공식인증 예약센터 방문
또는 1577-1233 으로 연락주세요.